

# 介庵 姜翼의 學行과 文學\*

문범두\*\*

|| 차례 ||

1. 머리말
2. 生涯 : 學行 一致의 道學者의 삶
3. 交遊를 통한 道義와 學問의 講磨
4. '爲己之學'과 道脈 繼承 事業
5. 文學 世界
6. 맺음말

## 【국문초록】

개암 강익은 조선 명종대 함양 출신의 유학자이다. 그는 일생 벼슬하지 않고 향리에 머물며 전형적인 도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엄정하고 절제된 생활 태도로 일관했고 유교적 의례와 법식에 철저하였으며 성리제가의 학문을 끊임없이 연마하였다. 그리고 양은 많지 않지만 개성 있는 문학 작품을 남겼다. 이 논문은 개암의 생애, 학문과 사업, 그리고 문학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개암은 처음 향리의 스승에게서 학문을 익히고 그 문하의 유생들과 우의를 나누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강우지역의 유종인 남명의 가르침을 받았다. 남명 문하의 출입은 그의 학문에 깊이를 더하게 하고, 그 방향성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나아가 김우옹, 오건 등의 문하 동문들과의 인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개암은 '爲己'의 학문을 하고자 하였다. 천리를 구현하고 인욕을 막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적 바탕인 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함양성찰의 공부방법이다. 한편 그는 유교 의례에 깊이 통효하였으며, 유학의 보급과 창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남계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것은 선현의 학덕을 후대에까지 이으려는 그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하겠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진주산업대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진주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개암의 시문은 남은 수가 적지마는 그의 문학적 정수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다. 우선 문예적 격식을 갖춘 문으로는 두 편의 기문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치밀한 구성과 유려한 표현미, 그리고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의 시는 대개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대개 두 경향을 보여준다. 첫째는 본성의 함양을 위한 중요한 매개로써 자연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다음은, 자연을 즐기으로써 일상의 규례를 벗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시이다. 그러나 실상 이 두 경우의 지면에 흐르는 시인 정신은 동일한 것으로, 세속의 한점 진에도 없는 자연과 인간 본성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강익, 개암집, 남계서원, 조식, 정여창, 사림

## 1. 머리말

介庵 姜翼(1523-1567)은 명종대의 유학자이다. 경상도 함양에서 태어나 향시에 두 차례 응한 후에는 과거에 뜻을 접고 일생 향리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45세 되던 해에 학행으로 소격서 참봉을 제수 받았으나 행장을 꾸리던 중 홀연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개암은 비록 큰 자취를 남긴 인물은 아니지마는 그의 학행과 사업, 문학적 성취는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우선 그는 南冥 曹植의 문도이다. 따라서 그를 중심으로 한 인물관계를 확인해 간다면 남명 문도 상호간 이루어졌던 교유의 양상과 그 성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남명을 종주로 한, 소위 江右學派가 형성하는 인적 범주의 외연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師友間에 보편적 토대를 이루었던 학문적, 사상적 경향성을 읽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우리 역사상 첫 번째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서원

役事를 주도하였다. 鄭汝昌의 위판을 봉안하기 위한 瀟溪書院의 창설이 그것이다. 실제의 사액은 조금 늦어졌지만 그 전통이 일천한 중에 서원 창설을 주도한 점과, 그럼으로써 정여창의 유업을 진작시킨 공로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암이 특히 정여창의 祠宇를 세우고자 한 근본적 의도를 살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의 학문적 연맥 관계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그의 문학에 대한 이해이다. 文으로서 두 편의 記文이 남아 있는데 문예적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詩의 경우는 대개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자연의 인식 태도와 그 시적 형상화와 관련하여 그의 개성적 문학 세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암의 글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는 점은 아쉬운 일이다. 그의 문집으로는 증손인 姜大徵이 남계서원에서 1686년 간행한 『介庵集』이 있다. 1책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2는 제문 등이 실린 부록이고 권1에 그의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한시 22題 25수와 書 6편, 記 2편, 國문단가 3수가 편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적은 양의 작품이다.

그동안 개암과 그 문학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다. 우선 이른 시기에 개암의 삶을 문집 내의 短歌와 관련지어 살핀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金思燁은 그의 『國문학사』에서 최초로 개암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생애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문집 所載의 세 편 단가 중에서 두 편을 소개하였다.<sup>1)</sup> 단일 논문으로는 金一槿의 연구가 최초의 것이다.<sup>2)</sup> 여기에서는 개암의 생애와 학문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단가 3수의 내용상의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문학적 가치 및 사적 의의까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암에 대해 본격적 논의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후 단가에 대한 관심<sup>3)</sup> 외에 이렇다할

1) 金思燁, 『國文學史』(正音社, 1953) 379쪽.

2) 金一槿, 『介庵 姜翼先生의 生涯와 文學』, 『文湖』Vol2(건국대학교, 1962)

3) 대표적으로 呂基鉉의 논문을 들 수 있다.(『江湖認識의 한 樣相』, 『반교어문연구』

논의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는 『개암집』의 서지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해제가 이루어졌고<sup>4)</sup>, 문집에 수재된 행장과 연보의 번역 작업도 있었다.<sup>5)</sup>

개암의 생애나 문학에 대해서 이상과 같은 몇 차례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대개 평면적인 소개에 그치고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기왕의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傳記的 사항에 대한 정밀한 천착을 포함하여 그의 학행과 문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sup>6)7)</sup>

## 2. 生涯 : 學行 一致의 道學者의 삶

介庵 姜翼은 향년 45세로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았다. 개암의 생애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문집에 남아 있는 挽章과 祭文이 있다. 이들은 시기적으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기록된 것들이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만장은 南冥 曹植을 비롯하여 玉溪 盧禎 등 일곱 사람이 지었고, 제문은 노진, 東岡 金宇顯 등 네 사람이 지은 작품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제문 등은 글의 성격상 삶의 소상한 부분까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Vol. 1, 반교어문학회, 1988, 146-148쪽)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민족문화연구소자료총서』 Vol. 4, 1994, 50쪽; 尹浩鎭, 「介庵集 解題」, 『南冥學研究』第十輯(남명학연구소, 2000) 385-398쪽

5) 崔海甲, 「介庵 姜翼의 年譜와 行狀의 翻譯」, 『진주문화』Vol.13(진주교대 부설 진주 문화연구원, 1994) 1-26쪽.

6) 본 논고에서 문집 소재의 단가 세 편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조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 성과가 개암의 시조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

7) 본 연구에 이용된 텍스트는 민족문화추진회 刊 『韓國文集叢刊』(38)에 실린 『介庵集』이다. 이의 자세한 간행 및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문집총간』(38)의 범례,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종합 DB 『介庵先生文集』에 붙인 李美實의 해제, 그리고 尹浩鎭의 앞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그가 몰한 시점에서 다소 멀어지기는 하나 일생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역시 문집에 실린 <행장>과 <연보>이다.<sup>8)</sup> <행장>은 從子인 姜渭琇가 지은 것과 桐溪 鄭蘊이 지은 것이 있다. <연보>는 그 작성자를 알 수 없다.

강위수의 <행장>은 끝에 萬曆 24년 丙申年(선조 29년, 1596) 2월 上澣으로 기록 시점을 밝히고 있다. 개암 사후 29년이 지난 때이다. 생애 중에서 중요 사건마다 간지를 붙여 그 시기를 밝히고 출생부터 사후의 장례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뒷부분에는 개암의 성품과 학문을 종합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노진과 김우옹의 제문 내용을 소개한 후, 자녀의 혼인 등에 관한 이야기로 끝맺고 있다.

정온의 행장은 말미에 붙은 誌에 따르면 詳略이 다른 두 분이 있다고 하였다. 문집에는 간략한 것(정온의 문집에 실려 있다)을 싣고 다른 본의 내용은 小注로 덧붙였다. 기록 연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글의 말미에 부기된 관직명이 尙瑞院正으로 되어 있어, 정온이 상서원정으로 임명된 인조3년(1625년) 즈음의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전체적인 내용은 강위수의 것에 비해 다소 소략하다. 간지도 중요한 일이 있었던 때 몇 군데에서만 밝히고 있다. 단지 말미의 구성은 강위수의 그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요컨대, 그 내용의 유사성과 시기적 선후관계로 보아 정온의 행장은 먼저 있었던 강위수의 것을 참고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번잡한 것은 버리고 중요 사안만을 위주로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연보>는 숙종 15년(1689)의 기록까지 나와 있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글의 끝에 있는 ‘今上元年’이라 한 표현으로 미루어 숙종 당대

8) 물론 문집 내의 다른 기록들이나 동시대에 그와 교유한 인물들의 문집 등에 산재한 관련된 기록 등 역시 그의 삶을 재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 동계의 행장 내용 중에 개암이 몰한 지(1567년) 60여년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대개 이 즈음이 되겠다.

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정온의 행장보다도 최소한 60여년 뒤에 작성되었다. <연보>는 <행장>의 기록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마는 개암의 탄생부터 45세로 몰할 때까지의 행적이 연령순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편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위수의 <행장>과 비교해 볼 때 덧붙여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정보보다는 주로 개암의 비범함을 높이는 전언, 일화 등인 것으로 보아, 그의 사후 家乘이나 지역의 口聞들을 두루 수집하여 보탠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개암의 자는 仲輔이고, 호는 개암 외에 松庵으로도 쓴다. 관향은 晉州이다. 始祖는 兵馬元帥를 지낸 姜以武이다. 祖父는 현감을 지낸 琴齋 姜漢이고, 아버지는 承仕郎 경기참봉을 지낸 姜謹友이다.<sup>12)</sup> 어머니는 南原 梁氏로 參判 逸老堂 梁灌의 손녀이고 승사랑 梁應驥의 따님이다. 개암은 1525년(중종 18년) 함양군 동쪽에 있는 孝友村 본가에서 태어났다.

개암은 당시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으나 매우 비범한 자질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진다. 초학 입문이 늦은 이유는 그가 매우 병약했기 때문이었다. <연보>에는 11세 이후 병세가 심하여 글을 읽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친 승사랑도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 15세쯤에는 건강을 다소 회복한 듯 부친의 권유로 향리의 유학자인 唐谷 鄭希輔의 문하에 들었다. 초학의 학도로서는 나이가 자못 많았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동문의 학동들이 그를 무시했던 듯하다. 그러나 스승인 당곡이 시험 삼아 그에게 사서를 가르치자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

10) 개암집의 초간본은 梁天翼의 주관으로 숙종12년(1686)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여기 숙종15년의 기록으로 미루어 초간 이후 숙종 당년에 다시 추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 DB 『介庵先生文集』 李美實의 해제 참조)

11) 따라서 본고에서 전기적 사실을 밝힐 때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강위수의 <행장>을 우선하고, 여기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온의 행장과 <연보>의 기록을 참조할 것이다.

12) 『개암집』下, <世系> 참조

는 것이 노성한 학자와 같았다고 하였다. 당곡은 놀라 문하의 학도들에게 후일에 大儒가 될 것이라 하고, 이후로 그를 후진이라 생각하지 말도록 경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3)</sup>

개암은 이후 학문 연마에 힘썼으나 정작 관직에 나아가는 데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그는 당곡의 문하에 나아간 이후부터는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종일토록 바른 자세로 앉아 침식을 잊을 정도로 글을 읽었다고 하였다. 자질이 뛰어나 책 한권으로도 문리가 통할 정도였기 때문에, 당곡이 이를 두고 ‘용이 날고 봉이 우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인데, 이 아이의 변화 기질이 이처럼 빠르다<sup>14)</sup>’라고 칭찬하였다. 처음 과거에 응한 것은 그의 나이 27세 되던 해이다. 모부인의 명으로 백형과 함께 향시에 나아가 진사시 삼등 18인에 들었다. 그 이듬해 다시 한 번 응과하고는 곧 과시에 뜻을 버렸다. 이후 그는 인근 승지에 齋舍나 樓亭을 조성하고 원근 선비들과 교류하며, 학문에 전념하고 내척에 힘쓰는 전형적인 도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재사와 누정 건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그는 재사 등을, 학문을 연마하고 강학하며, 문사들과 교류하고 소요자적하는 장소로 삼았다. 26세 되던 해에 집의 남쪽에 夙夜齋라 명명한 서재를 지어 글을 읽고 마음을 닦았다. 매일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몸을 씻고 의관을 갖추어 먼저 가묘에 배알하고 모부인에게 문안한 후, 서재로 가서는 글을 읽었는데 진흙으로 빚은 것 같았다고 하였다. 다음 해에 이곳 숙야재로 德溪 吳健과 김우옹이 그의 현명함을 듣고 찾아왔다. 이들은 이곳에 며칠을 머무르면서 경전과 사서를 연구하며 토론하였으며, 이로써 서로 ‘知心의 友’를 허하였다고 하였다. 31세 되던 해에는 오건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였다. 이 때

13) 唐谷竦然曰 爲他日大儒 必此人也 因語門徒曰 勿以爲後進 當師表諸君(『개암집』, <행장-강위수>)

14) 龍之飛 鳳之鳴 固不待習熟而能 此子之變化氣質 若是之速也<행장: 위수>

그는 지리산 북쪽 기슭에 있는 登龜洞이라는 마을이 그윽하고 두루 막힌 것을 보고 이를 사랑하여 그 곳 땅을 매입하고는 노년을 마칠 결심을 하였다. 여기에 작은 서재를 지어 ‘養眞齋’라 칭하였는데, 원근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다투어 그 배운 바를 물었다. 41세 되던 해에는 양진재의 남쪽에 친히 느티나무를 심고 『논어』 曾點의 뜻에서 빌어 이름 붙인 ‘風詠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한가함을 누리고 시를 짓는 곳으로 삼았다. 주변 경치가 수려하여 자주 문생들을 데리고 와 그곳에서 시를 읊곤 하였다.

그는 서재에 머물며 글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상 외에 종종 인근의 문인, 학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숙야재를 찾은 오건 등과 며칠을 함께 한 사실을 이미 말하였는데, 그 외에도 <행장> 등에서 원근의 문인, 학사들과 가졌던 크고 작은 만남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34세 때 오건과 葛川 林薰이 눈을 무릅쓰고 그를 방문하여 학문에 대해 논한 것도 그 한 예이다. 문집의 <謝林葛川吳德溪諸兄雪中見訪>은 이 때 지은 시이다. 29세 되던 해에는 남명을 비롯하여 그 문도인 노진, 오건 등과 함께 花林洞에서 유람하였다. 이 文遊에 대해서는 문집에 남아 있는 <遊花林洞>이라는 시로써 그 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西溪에서 노닌 것은 개암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의 대강은 김우옹이 지은 <唱酬錄序>에서 볼 수 있다.<sup>15)</sup> 『개암집』에는 ‘서계창수’라고 하여 별도의 항목을 만들고 이때 지은 시들을 모았는데, 개암 자신이 지은 여섯 수의 시 외에 당시 수창했던 문인들의 원운 차운시가 수재되어 있다.

30세를 전후하여 문명이 높아지자 그를 찾는 제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1세 때 세운 양진재는 동학의 선비들과 교류하는 곳이기도 했지

15) 『개암집』과 『東岡先生文集』에 함께 실려 있다. 『개암집』상권에는 서계창수시 말미에 <附金東岡唱酬錄 并序>라고 하여 실려 있고, 『동강선생문집』권지일의 <西溪唱酬三首 并小序>로 하여 붙어 있다. 단지 『개암집』의 것은 『동강집』의 것에서 중간 내용을 줄였다.

마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당으로도 이용되었던 것 같다. 34세 이후는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 자못 문진이 붐볐다고 했다. 그가 주관하여 건립을 추진한 濼溪書院의 役事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의 39세 이후에는 이 남계서원에서 직접 유생들을 가르쳤다. 통독하는 규칙을 정해 매월 초하룻날에 문도를 모아두고 강독을 하였다.<sup>16)</sup>

一蠹 鄭汝昌의 위판을 봉안하기 위한 남계서원의 건립은 그의 일생 중 가장 뚜렷한 공적으로 기록된 일로서, 건립의 논의로부터 완성까지 10여년에 걸친 긴 공역이었다. 30세 되던 해에 향리의 유생과 의기투합하여 役事를 시작한 후, 42세가 되던 해에 東西 齋舍를 세움으로써 비로소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서원이 완공되자 개암은 원장의 직임을 맡아 제향을 주관하고, 원근 학자들과 강학을 주선하기도 하며 후학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45세 되던 해(명종22년)에 오건의 천거로 소격서 참봉을 제수 받았다. 비록 출사를 반겨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행장을 꾸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득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幽明을 달리하였다.

개암은 사림 출신으로서 도학자로서의 전형을 보였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강위수 <행장>에 기술된 내용 중에서 그의 인품, 생활, 학문에 관련된 것을 대표적으로 가려 뽑은 것이다.

선생은…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고, 시비를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침잠하고 고요하였으며 행동은 고인의 법도를 따랐다. 술을 좋아하지 않고 聲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일체의 세상일에 담박하였다. 몸가짐은 간명하고 진중하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온화하고 엄정하였다.<sup>17)</sup>

16) 嘉靖四十一年 壬戌 先生年四十歲 率諸生 春秋院享之餘 執經論辨 或至累日 遠方士子之有志於學者 爭駢趨而承學焉 先生乃定諸生通讀之規 每月朔 會諸生講讀 士多有成就者(『介庵集』下, <年譜>)

17) 先生…喜怒哀不形於色 是非不出於口 而沈潛靜默 動遵古人繩墨 不喜麴蘖 不近聲

아버이를 섬길 때는 養志를 우선으로 삼아, 터럭만큼도 의롭지 않은 것으로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집을 다스릴 때는 禮敬을 주로 하여 천하고 비루한 것으로 의례를 어지럽히지 않았다.<sup>18)</sup>

그 배우는 데 있어서는 스승에게 이어받은 바가 없으나 스스로 능히 분발하여 깨달았으며, 자나 깨나 성리학을 공부하여 성명의 원천을 탐구하였으며<sup>19)</sup>

위 인용문의 첫 번째 것은 엄정하고 절제된 생활 태도를 보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유교적 예의와 법식에 철저한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요컨대, 개암은 출사에 크게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자연 속에서 적연궁리하면서 성정을 기르며, 인근 문사들과 도의로 교제하는 것을 일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인물이라 하겠다. 개암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爲己之學’의 학문적 지향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데서 연유한 바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3. 交遊를 통한 道義와 學問의 講磨

조선 당대 사대부의 교유는 단순히 사회성을 유지하는 정도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학문과 도의를 닦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인적 범주는 그의 학문적 성격과 세계관을 두루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개암

---

色 而一切世味 淡泊如也 其守己也簡而重 其接人也和而嚴(『개암집』하, <行狀-강위수>)

18) 事親則以養志爲先 而不以一毫非義逆其心 刑家則以禮敬爲務 而不以俚近鄙野亂其儀(위의 책, 같은 곳.)

19) 至其爲學 則無所師承 而自能奮發超悟 寤寐伊洛之學 探頤性命之原(위의 책, 같은 곳.)

은 함양에서 나서 여기에서 일생을 보냈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에는 남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따라서 향리 인근의 문사들과의 사귄도 돈독했겠지만, 남명 문하의 유생들과도 폭넓게 교류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개암의 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암이 처음 가르침을 청한 스승은 함양의 유학자인 당곡 정희보라 하였다. 당곡은 인근의 유생들을 모아 가르쳤는데, 그 중 다수가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다<sup>20</sup>). 그러나 그는 높은 학문적 경지에 이른 학자는 아닌 듯 개암의 지적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sup>21</sup>) 그래서인지 어느 정도 학업을 쌓게 되자 개암은 전적으로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고 난해처가 나올 때만 질정하였다고 했다. 당곡의 문하에 있었던 초년의 수학기를 제외하고는 개암은 어느 시기까지는 스승에게서 보다는 오히려 독학으로 일정한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정운은 <행장>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여, ‘그 학문하는 데 이르러서는 스승에게 전함을 받은 바는 없으나 스스로 능히 분발하여 깨우쳐 의리를 탐구하고 현묘한 뜻을 꿰뚫어 보았다.’<sup>22</sup>)라고 하였다.

당대 강우 지역의 儒宗인 남명의 문하에 출입한 것은 그의 학문에 깊이를 더하고, 그 방향성을 더욱 공고해 했을 뿐 아니라, 동문의 문사들과 교의를 맺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말했듯이, 남명을 처음

20) 개암의 벗 옥계 노진이 지은 <處士鄭公墓誌銘>에 따르면 당곡은 淡泊自守한 향리의 처사로 나이 들어서는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는데, 그 문하에서 배워 출사한 이가 매우 많았다고 하였다.(『玉溪集』卷三)

21) 文理通達 凡經傳百家 觸處豁然 自是 不復從師 只拈出微奧之難曉者 就正焉<행장>; 同門의 玉溪 盧禎의 행장에도, 당곡이 詞章에는 이름이 있으나 의리의 정밀한 곳에 대해서는 그 깊은 뜻을 궁구하지 못하여 노진이 아쉬워했다고 하였다.(鄉有老儒 鄭希輔 有詞學之名 公以大學韓文就質之 鄭君雖解其文句 而至於義理研精處 則未能究其蘊奧 公遂有悵然之志 『玉溪先生文集』卷之六 附錄, <行狀>)

22) 至於爲學 無所師承 而自能奮發超悟 探曠義理 貫徹玄微(『개암집』하, <행장-정운>)

만난 것은 개암 나이 29세 때(명종6년 1551년)였다. 기록에는 남명이 화림동에 왔다가 개암의 현명함을 듣고 찾아왔고, 함께 화림동에서 노닐었다고 했다.<sup>23)</sup> 개암이 남명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두 차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32세 되던 해(명종 9년, 1554)로, 덕천동에 있는 남명을 배알하고 여러 달을 머문 후 돌아왔다고 했으며,<sup>24)</sup> 두 번째는 36세 되던 해로 역시 몇 달을 머물면서 주역을 배웠다고 하였다.

『개암집』에는 개암이 남명에게 보낸 편지와 남명의 답신이 실려 있다. <南冥曹先生書>로 되어 있는 이 서신에서 개암은 남명이 교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 시세의 혼탁함을 걱정하면서도 斯文을 위하여 출사하기를 꼭진히 청하고 있다.

임금의 명이 바야흐로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고담무민의 즐거움에 있어 조금도 경중을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혹 크게 시문을 우리 동방에 밝히려는가 봅니다. 그런 즉 저의 기뻐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말로 할 겨를은 없으나 실로 우리 도의 다행이요 이 세상의 복입니다. 단지 근래에 소란이 분분하여 숙손이 성인을 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비록 똥을 싸도 어찌 옥의 흰색에 해가 되며, 조각 구름이 비록 어둡게 하나 어찌 해의 밝음을 덜겠습니까. 바라건대 蠱卦 上九의 뜻(不事王侯 高尚其事-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을 고상하게 여긴다)을 이루지 마시고, 豫卦 九四(由豫 大有得 勿疑 朋盍簪-예정대로 하면 크게 연음이 있을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친구가 모이리라)를 연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sup>25)</sup>

23) 南冥先生遊花林洞 聞先生之賢 歷訪仍與同遊於花林(『개암집』하, <행장-강위수>)

24) 그런데 이 때는 남명이 삼가 토동에 있을 때이고 덕산에는 아직 산천제가 건립(1561년)되기 이전이다.(宋準混, 『南冥學派의 書院建立 運動』, 『남명학연구』Vol.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240쪽 각주 참조) 이 시기 개암이 남명을 찾아가 머문 것은 사실이나 뒤에 기록한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그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다.

남명이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이 어느 때의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위의 서신에서 개암은 남명이 시세의 혼란을 불식하고 유학을 진흥시킬 수 있는 책임자이니 출사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암이 주역을 남명에게 배웠다고 했는데, 주역 경문의 표현을 빌어 출사를 청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위 서신의 말미에 보면 당시 개암은 동문의 유생들과 함께 의례를 공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남명의 답신은 개암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sup>25)</sup>

위 두 차례 장기간의 수학을 제외하고도 개암이 남명과 함께 한 사실을 문집에서 몇 차례 더 찾을 수 있다. 개암 41세 되는 해(명종18년, 1563) 3월에 남명은 河沆, 柳宗智, 陳克敬과 함께 함양에 왔다. 이 때는 남계서원의 역사가 시작된 후 10년 만에 비로소 정여창의 위판이 사당에 봉안된 그 다음해이다. 남명은 남계서원의 정여창 사당을 방문하여 분향하고 개암을 포함하여 원근에서 모여든 많은 선비와 강학하였다. 그리고 개암과 함께 당시 부친상을 당하여 여막에 있던 임훈을 찾아 위문하였다.<sup>26)</sup> 44세 되던 해 1월에는 산음의 지곡사에 들른 남명을 개암은 노진, 오건과 함께 찾았고, 그해 또 3월에는 노진과 함께 남명을 모시고 임훈을 방문하고 함께 옥산동을 유람하였다.

개암은 남명에 앞서 생을 마쳤다. 개암의 문집에 남명의 만장이 실렸는데 이는 『남명집』에 <姜參奉輓詞>라는 제목으로 똑 같이 실려 있다. ‘하

25) 竊聞綸命鼎至 更陞峻秩 在高蹈無悶之樂 固非絲毫輕重 而天其或者大明斯道於吾東 則如翼欣踴感發之私 不暇言 而實吾道之幸也 斯世之福也 但近世澆甚紛紛 叔孫毀聖 而顧蒼蠅雖點 何害於玉之白 片雲雖陰 何損於日之明 惟望勿遂蠱九之志 勿疑慮四之得(『개암집』상, <上南冥曹先生書>)

26) 개암집에는 남명의 답신을 <附曹南冥謝帖>으로 하여 실고 있으나 『남명집』에는 같은 편지가 <답중보등서>로 되어 있어 개암 뿐만 아니라 함께 의례를 공부하던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尹浩鎭, 앞의 논문, 396쪽 각주 참조)

27) 李翼成 譯, 『南冥先生文集』 <編年>(德川書院·頭流文化研究所, 1980) 395쪽

늘에 호소해도 어쩔 수 없으니, 이 군자가 과연 무슨 허물 지었나<sup>28)</sup>라고 하여 제자를 앞세운 스승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개암이 실제로 남명에게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추찰한 만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단지, 당대의 혼란을 수습할 인물로서 출사를 청했던 만큼 그에 대한 학문적, 인격적 숭모의念은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주역을 배웠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학문적 도움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개암은 남명의 어떤 특정한 학문적 영역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그의 사유방식이나 세계관 등에 포괄적으로 공감하였을 것으로 본다. 김우옹이나 오건 등과 같은 남명 문하의 동학과 나눈 우의가 특별히 깊었던 것도, 사우간에 공유했던 그러한 세계관적 동질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암과 우의를 나눈 당대의 문사로는 玉溪 盧禎, 德溪 吳健, 東岡 金宇翁, 開巖 金宇宏, 梅庵 曹湜, 徙庵 盧祿, 梅村 鄭復顯, 沙溪 金宇容, 思庵 梁弘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일부는 향리의 유생이고, 또 대개는 남명의 문인들이다. 이 중 가장 깊은 우의를 나눈 당대의 문사로는 노진, 오건, 김우옹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노진은 한 마을에서 당곡을 스승으로 하여 함께 배운 후 일생을 함께 한 개암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다. 문집에 실려 있는 노진과 나눈 서신은 성리학의 깊은 부분까지 궁구 토의했던 그들 교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sup>29)</sup> 노진은 제문에서 개암과 함께 거하며 학문을 닦았던 일을 두고 ‘내가 집에 머물 때는, 반드시 그대와 함께 즐기고, 열흘에 몇 번을 거듭

28) ‘上天呼不得 君子果何愆’(『개암집』하, <제문-조식>)

29) 문집에는 <答盧玉溪(子膺)書>라 하여 개암이 노진에 답한 편지글이 한 편 실려 있고, 이어 노진의 원첩이 부기되어 있다. 노진은 視聽言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개암은 노진에게 이는 직접 대면하여 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답을 하고 있다.

만나도, 대하면 문득 가기를 잊었으니, 낮과 밤을 이어, 삼사일을 같이 했다<sup>30)</sup>라고 하였다. 격의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암이 죽자 그는 두 편의 만장을 남겼는데 그 중 한 곳에서 ‘이 생에서 길이 이별할 줄 아노니, 우주에 깊은 슬픔을 부친다<sup>31)</sup>’라고 하여 평생의 지기를 잃게 된 것을 깊이 슬퍼하였다.

개암이 오건 김우옹 등과 교유한 사실도 문집 등을 통해 두루 찾아 볼 수 있다. 개암은 이들과 함께 승경을 찾아 문유를 즐기고, 여러 밤을 함께 하며 경사를 탐독하고 도의를 강마하는 등 서로간의 정리가 특별하였다. 앞서 개암이 27세 되던 해 오건과 김우옹이 숙야재를 방문하여 며칠을 함께 묵으면서 경사를 연도했음을 보았다. 문집에 실린 <同吳德溪盧玉溪梁思庵讀書山寺> 시는 그가 오건과 노진, 양홍택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으며 쓴 시이다. 여기에서, ‘한바탕 기쁜 만남 이 좋은 인연인데, 한 달 동안 책상을 맞대었으니 어찌 우연일까<sup>32)</sup>’라고 하였으니, 한 달을 함께 지내면서 글을 읽었다는 것이다. 각각이 학문적 진전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로써 서로간 우의의 두터움을 짐작할 수 있겠다. 오건과 김우옹 역시 개암의 사후 만장 또는 제문을 남겼다.

개암은 그 스스로의 노력 외에도, 이상과 같이 스승이나 벗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그 방향성을 확립해 갔을 것으로 믿는다. 단지 상계한 것 외에 참고할 자료가 소략하여 그 내용을 정밀하게 살필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초기 사림의 실천적 학문 성향이 남명을 중심으로 한 강우지역 학풍에 이어져 그 특징을 이룬 것에 개암도 어떤 형식

30) ‘其在家食 必與君娛 一句累遇 對輒忘趨 留連宵晝 曠日三四’(『개암집』하, <제문-노진>)

31) ‘此生知永已 宇宙寄深悲’(『개암집』하, <만장-노진>)

32) ‘一場歡會是良緣 浹月連床豈偶然’(『개암집』상, <同吳德溪盧玉溪梁思庵讀書山寺>)

으로든지 참여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적 관계 때문이라고 하겠다. 개암의 학문 성향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 4. ‘爲己之學’과 道脈 繼承 事業

<행장>에는 16세 되던 해에 개암이 자신의 학문 방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선생이 말하기를, “선비의 학문이 어찌 다만 科擧의 글뿐이겠는가. 자하는, 옛날의 학자는 ‘爲己’의 학문을 하였으나 지금의 학자는 ‘爲人’의 학문을 한다고 말하였다. 선비로서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마땅히 ‘위기’의 학문을 할 것인가, ‘위인’의 학문을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sup>33)</sup>

개암 자신으로서는 ‘爲己’의 학문을 하고자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위기의 학문’이란 인용문의 언급처럼 科擧를 위한 공부인 ‘爲人之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天理를 구현하고 인육을 막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적 바탕인 性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자의 존심양성에 논리를 둔 함양 성찰의 공부방법을 말한다.

조선시대 사림은 이념적 성향의 측면에서도 특징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왕조 개국과 함께 상층 지식인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던 것은 정주 성리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통치세력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들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했던 처사적 문인들에게 있어서도 의리와 명분의 처세 철학을 제공했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성종대 사람에게 있어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학풍이 실천적 경향을 띠게 되

33) 嘗曰士之爲學 豈獨時文而已 子夏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士之志學者 當爲己乎 爲人乎(『개암집』하, <행장-강위수>)

었다는 사실이다.<sup>34)</sup> 당대의 사림이 인간 보편의 윤리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소학』과, 생활 중의 예교와 법식을 규정하는 『주자가례』나 향약을 중시한 데서 드러난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의리실천을, 또 개인의 내면 수양에 있어서는 윤리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관직에 진출해 주로 언관직을 수행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는 쪽으로 실현되고, 후자는 충이나 효와 같은 실천적 윤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실현되었다.<sup>35)</sup>

충이나 효의 가치를 실현하고, 생활 중의 자기 수양을 통해 공리진성하는 도학자적 삶을 추구하는 공부 태도가 爲己之學이다. 출사하여 성리학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려는 경우와 별개로 이런 위기지학의 처세관을 가치의 중심에 두는 경우는 성종대 성리학자들에서 구체화되어 개암이 살았던 시기까지 하나의 견고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명 조식을 중심으로 한 강우학파의 경우는 인적, 학문적 교류를 통해 위기지학의 실천적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남명의 철저한 존양 성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로써 다음의 시를 들고 있다.

全身四十年前累	온 몸에 두른 사십년의 허물
千斛清淵洗盡休	천 섬 맑은 물로 모두 씻어낸다
塵土尙能生五內	오장 안에 만약 티끌이 생긴다면
直今刳腹付歸流	지금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띄우리 <sup>36)</sup>

34) 尹絲淳, 『濯纓의 道學精神』, 『濯纓 金駟孫의 文學과 사상』(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230쪽

35) 李秉然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이념 구현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니고 있었지만 학문적인 면에서 이 둘 중에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즉 경학 위주의 '爲己之學'에 치우친 경우와, 경학의 바탕 위에 서 있기는 하되, 사장학 쪽을 좀 더 깊이 유념하는 '治人之學'에 기울어진 경우라고 하였다(李秉然,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 및 대응』, 민족문화연구원 편, 『濯纓 金駟孫의 文學과 사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23쪽)

‘오장 안에 티끌이 생긴다’는 것은 내면에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띄운다’는 것은 마음 속의 한 점 더러움이라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sup>37)</sup> 이와 같이 철저한 修己의 태도는 개암의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仰天慙白月	하늘을 바라보니 흰 달에 부끄럽고
臨水愧清流	물을 대하니 맑은 흐름에 부끄럽네
多少心身累	조금이라도 심신에 쌓인 것
何能刮盡休	어찌 능히 다 닦아 낼 수 있으랴 <sup>38)</sup>

‘白月’과 ‘清流’는 지극히 맑고 깨끗한 것을 대표한다. 자신의 마음을 여기에 비취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닦아 내고 싶다고 했다. 한 점 외물의 끼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수양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은 남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연보>의 38세 때 기록에서 그의 평소 일상을 엿볼 수 있다.

행동이 독실하고 내면을 기름이 더욱 깊어, 외물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오로지 덕으로써 귀착하였다. 방을 조용하고 깨끗이 하여 좌우에 경전과 사서를 두고, 의관을 갖추어 엄정한 모습으로 두 손을 마주잡고, 입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은 창문 밖을 보지 않으니 깨끗한 모습이 그림 속의 사람 같았다.<sup>39)</sup>

36) 曹植, 『南冥集』1卷, <浴川>

37) 李相弼은 남명의 이런 철두철미한 수행 태도를 그가 지은 <神明舍銘>의 표현을 빌어 ‘廡殺의 存養省察’이라 하였다.(李相弼,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30쪽.

38) 『介庵集』上, <月夜玩溪有感>

39) 踐履篤實 充養益深 不以外物嬰心 專以德義爲歸 而靜掃一室 左右經史 深衣大帶

거경함양을 위한 경의 실천으로서 심신의 수련과 의식의 각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좌 수련하는 개암의 모습이다.<sup>40)</sup> 이는 내면의 수양을 일상의 삶으로 여긴 개암의 실천적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개암이 ‘위기지학’으로서 존심양성의 실천적 생활태도를 견지한 것과는 별개로, 그는 실제로 유교적 의례와 법식에 깊이 통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암이 동문 유생들과 함께 의례를 별도로 공부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는데<sup>41)</sup>, 부친상을 당하여 상례와 제전의 절차를 『주자가례』의 법식에 따라 지킨 것을 두고 인근의 칭송이 자자했던 것도<sup>42)</sup> 그가 의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한편으로 남계서원을 건립하고 원장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院規를 정한다든가, 祭典 절차를 관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교적 의례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sup>43)</sup> 남명 역시 개암 사후 그를 위한 만사에서,

儀禮三千錄      의례 삼천의 기록을  
尋究五十年      살피고 연구한 지 50년<sup>44)</sup>

이라 하고 있다. ‘의례를 연구한지 50년’이라는 말은 ‘삼천’을 헤아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의례를 개암이 일생 궁구하고 천착했던 사실을 평가한 것이라 하겠다.

儼然端拱 口不作伊吾之聲 目不及窗牖之外 凝然若畫中人(『개암집』하, <연보>)

40) 조선조 사림의 정좌 수련에 대해서는 손병욱의 논문(『함양성찰』,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333-345쪽)을 참고할 수 있다.

41) 개암이 남명이 쓴 서신 말미에 ‘方與同志讀儀禮’라 하고 있는데, 이 서신에 대한 남명의 답신이 ‘답중보등서’로 하여 의례를 공부하는 유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의례 공부가 매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凡送終之禮 葬祭之節 一以朱文公爲法 鄉隣咸服其孝(『개암집』하, (행장-강위수))

43) 여기에 대해서는 <연보>의 39세, 40세 條 참조.

44) 『개암집』下, <挽章>

그는 개인적 수신과 병행하여, ‘사문을 흥기시키고 유교를 창명하는 것을 자기의 일로 삼았다’<sup>45)</sup>고 한 <연보>의 기록에서처럼 유학의 보급과 창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개암은 진작부터 후진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30세 전후해서는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미 언급하였듯이, 34세 즈음에는 문전이 붐빌 정도였다고 하였다.<sup>46)</sup> 濼溪書院의 건립을 주도한 것은 이런 그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하겠다.

개암은 30세 되던 해(명종 7년, 1552년)에 徙庵 盧祿, 梅村 鄭復顯 등과 의논하여 一蠹 鄭汝昌의 위판을 모시는 서원을 창립하기로 하였다. 이 때는 白雲洞書院(紹修書院) 외에 서원 건립의 전통이 서 있지 않아 의론이 분분했으나 그의 강력한 의지로 역사를 결행하였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인근의 선비들이 다투어 미곡을 내어 도왔고, 이 때의 함양군수인 徐九淵이 적극 도와 강당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연이 체직되어 간 후 신임 군수가 여기에 미온적인 데에다, 또 그해 흉년이 들어 강당에 기와도 없지 못하고 역사가 중단되었다. 37세 되던 해(명종 14년, 1559년) 군수로 온 尹確이 개암의 서원 역사를 좋게 여김으로써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 강당을 완성하고 담을 쳤으며 창고, 부엌 등을 짓고, 당의 동쪽 언덕에는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기 위한 廟宇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2년 후인 39세 때(명종 16년, 1561)에 비로소 서원 공역은 완성을 보게 되고, 중춘(2월) 16일에 鄉儒를 크게 모아 위의를 엄숙하게 하여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이 때 사람들은 모두 치하하여 말하기를 “이로부터 사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吾黨은 돌아갈 곳을 알게 될 것이다.”<sup>47)</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도 유생들의 기숙처인 齋舍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개암 42세 되던 해(명종 19년)에 군수로 부임한 김우옹의 백씨인 金宇弘의 조력을 받아

45) 先生三十歲 以興起斯文 倡明儒教爲己任(『개암집』하, <연보>)

46) 『개암집』하, <행장-강위수> 임자, 병진 條 참조.

47) 自此 斯文不墜 吾黨所歸矣(『개암집』, <행장-강위수>)

동서 재사를 건립하고 또 그 아래에 연못을 파고 매죽을 심는 등 서원으로 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이어 각 건물의 당호를 지어 명필로 이름이 높은 梅庵 曹湜으로 글을 쓰게 해서 편액하였다. 그리고 감사 李戡에게 청하여 네 읍의 식염과 두 읍의 어해, 어장을 서원에 영구 귀속시켜 필요한 것을 충당케 하였다. 그리고 그가 44세 되던 해(명종21년, 1566)에 조정으로부터 濼溪書院이라는 액호를 하사받았다.<sup>48)</sup>

남계서원을 창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남계서원기>를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이 있다.

아! 이 도가 그치지 오래도다. 오직 우리 문헌공이 정주의 뒤에서 동국에 우뚝 태어나, 전하지 못한 학문을 전수하시고, 오래 어두웠던 도를 밝히셨다... 하늘이 선생을 빼어나게 함은 우연이 아닐진대, 하늘이 선생을 화에 빠트린 것은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하늘로 하여금 선생의 도를 행하게 했다면 아마도 세대로는 요순이요 사람으로는 정주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선생의 도를 곤액에 들게 하여 다만 변방의 鍾으로 하여금 송의 황경견과 나란히 울리게 하였음을 탄식한다. 아! 선생이 죽은 지 지금부터 오십년이 되었으나 선생의 제사는 여전히 끊어졌으니 우리 군의 깊은 수치이다. 또한 어찌 우리 도가 깊이 통탄할 것이 아닌가. 옛날 정자와 주자가 죽으매 학자가 사모하여 한번 시를 읊고 한번 쉼 땅에도 서원을 일으켜 제사지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떳떳한 법을 지키고 덕을 좋아하는 하늘이 저절로 속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선생의 향리이겠는가?<sup>49)</sup>

48) 남계서원의 건립과정과 활동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윤희면의 논문(『경상도 함양의 濼溪書院 연구』, 『남명학연구』 제26집, 2007, 367-383쪽), 宋準湜의 앞의 논문(235-242쪽)에 자세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암집』 중 <연보>와 <행장>의 기록을 중심으로 그 건립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였다.

49) 噫 斯道之熄久矣 惟我文獻公 後程朱而挺生於東國 傳不傳之學 明久晦之道... 天之挺夫子 既非偶然 而天之禍夫子 又何至是哉 使天而行夫子之道 庶幾世唐虞人程朱 而嗟天之厄夫子之道 法使塞之鍾 竝聲於宋之涪 天乎天乎 斯道之將喪乎 噫 夫子之歿 五十稔于茲 而夫子之祠 尚有闕然 顧非吾郡之深羞 而亦豈非吾道之深恫哉

개암은 위에서 정여창이 ‘不傳之學’을 전하고 ‘久晦之道’를 밝힌 공이 높은 데도 오히려 환란을 당해 곤액을 겪은 사실과, 또 그의 사후 50년이 지나도록 제사가 끊어진 것을 통탄해 하고 있다. 이어, 중국은 정자나 주자가 생전 사소한 인연을 둔 곳에도 그들을 추모하여 서원을 일으켰으니, 그만한 학덕을 지닌 정여창의 제사 지낼 곳을 그의 향리에다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

정여창은 49세 되던 해(연산군 4년)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금성부에 유배당했다가 55세 되던 해(연산군 10년)에 배소에서 풀하였다. 죽던 해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그러나 반정 후 중종 2년(1507년)에 복관되어 도승지로 추증되었다가 중종 12년(1517년)에는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개암이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기 위하여 서원 건립을 논의한 때는 사후 48년 후, 영의정으로 추증된 지 30여년 후가 되는 셈이다. 복관된 후에는 그의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家廟 외에 별도의 祠宇를 지어 추모하지 않은 것을 개암이 탄식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계서원 건립이 처음 논의된 때는, 인향을 제사하기 위하여 중종 37년(1542년)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액서를 하사받은 때(명종 5년, 1550년)로부터 불과 2년 후이다. 학덕이 높은 유학자를 제향하고, 그 유업을 이어 학문을 닦고 후학을 기르는 전통이 중국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에도 마련되었고, 또 왕이 이를 추진하는 형식인 사액이 이루어진 것이 개암으로 하여금 서원 창설을 강행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0)</sup>

昔程朱子歿 而學者慕之 一嘯詠 一遊息之地 無不起院而祀之 秉彝好德之天 自有不容誣者 況夫子之鄉乎(『개암집』상, <남계서원기>)

50) 이황의 청원에 의하여 소수서원이 사액을 받은 후 서원 건립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졌다. 남계서원이 건립을 시작한 다음 해에 임고서원이 건립을 시작했고, 임고서원과 함께 수양서원도 남계서원에 앞서 사액을 받았다.

그러나 개암이 서원 창립에 그 스스로가 앞서 적극 추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에 공감하는 바가 누구보다도 각별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정여창에 대한 후대 사람으로서의 평가, 즉 유학의 정통을 잇는 학문적 업적과 도덕적 순정성에 대한 개암의 절대적인 신뢰와 추종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sup>51)</sup> 어떻게 보면 개암 자신의 윤리적 실천과 위기지학의 학행 등은 정여창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따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같기도 보인다. 개암을 남계서원에 배향하기를 소청하는 후손 강명세의 <승배소>는 이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강익은)여창의 뒤 십수 년에 여창의 마을에서 태어나 그 풍도를 사모하고 그 도를 전하였습시다. 그 순정한 학문과 실천함의 돈독함은 실로 여창이 마음으로 전하고 정신으로 물려준 정맥입니다. 사회를 당한 여파에 선비의 기상이 이미 상실되고 도학을 숨어 말하니 강익이 개연히 도로써 자임하여 사원을 개창하고 정여창을 제사지내고 강학하고 여창을 높이니, 여창의 학문이 이미 끊어졌다 다시 이어져 여창의 도로 하여금 이미 어두운 것을 다시 밝히고 그 몸을 옥처럼 아름답게 깎고 여러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니, 울연히 백록서원의 유풍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강익의 학문은 정여창의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강익의 도는 정여창의 도가 아니겠습니까?<sup>52)</sup>

위에서, 개암의 ‘순정한 학문’과 ‘실천의 돈독함’은 정여창이 마음으로

51) 광해군 2년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에 대한 문묘 종사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이들의 학문적 정통과 도덕적 순정성에 대하여 조야의 폭넓은 신망이 있었음을 증명한다.(이승환, 『도통』,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483쪽 참조)

52) 後汝昌十數年 而生於汝昌之里 慕其風而傳其道 其醇正之學 踐履之篤 實汝昌心傳神授之正脉也 時當史禍之餘 士氣已喪 諱言道學 而翼慨然以道自任 芟院而祀汝昌 講學而尊汝昌 使汝昌之學 既絕而復續 使汝昌之道 既晦而復明 以之玉琢其身 蛾述諸人 蔚然有白鹿遺風 則翼之學非汝昌之學乎 翼之道非汝昌之道乎(『개암집』 하, <陞配疏>)

전하고 정신으로 물려준 정맥이라고 하였다. 개암의 학문과 실천적 윤리의식은 정여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이다. 즉, 개암의 정여창의 학행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인 추존은 그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指南으로 작용하면서, 서원 창립이라는 10여년 역사를 이끌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개암이 남계서원의 창립을 주도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존현 봉사, 강학과 藏修의 목적으로 설립된다. 실제로 남계서원은 설립 후 정여창을 제향한 외에, 원근 학자들의 강학의 장소로도 쓰였고, 또 개암 자신이 원장이 되어 유생들을 교육하는 등 서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개암의 정여창에 대한 학문적, 세계관적 일체감이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넓게 보아 개암이 믿는 방식으로 조선 도학의 정맥을 계승하려는 개인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가 이를 후대로 계승, 창달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소명 의식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암의 학문 성향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연찬과 그에서 비롯된 자아의식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 스스로가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自得’이라고 했으니<sup>53)</sup> 스스로의 정진과 독행을 통하여 나름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스승인 남명의 가르침과 동문 유생들과의 교유도 그의 학문적 성숙을 이루는 데 특별한 기여를 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향리의 고명한 유학자인 정여창을 私淑하면서 그의 학문과 덕행에 영향을 받은 바가 특별히 컸을 것으로 믿는다. 정여창에 대한 이런 각별한 추존의식은 남계서원의 10년 공역으로 대변되는 것이다.

53) 論學至自得勉強等語 乃曰 學貴自得 非自得者 亦至差失 事在勉強 非勉強 則無以成功(『개암집』하, <행장-강위수>

## 5. 文學 世界

경학을 중시했던 사림 출신의 선비가 대개 그렇듯이 개암 역시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홍을 만나면 시를 읊고, 일을 따라 글을 짓기도 했다’는 <행장>의 기록<sup>54)</sup>처럼 이런 저런 동기로 지은 글이 꽤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란 등의 이유로 대부분 흩어지고 문집에는 <양진재기>를 포함한 두 편의 기문과 남명 등에게 쓴 여섯 편의 편지글, 25수의 한시 그리고 국문 단가 3수가 남았다. 개암 詩文에 대해서는 鄭岐胤이 <介庵先生文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선생의 詩를 가만히 보면 성정에서 흘러나와, 엄정하나 고아하고, 화려하나 음탕하지 않아 한 점 진애가 없으며, 기상이 높아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발 시키며, 사람들의 안일한 뜻을 꾸짖어 일깨우니, 즉 『시경』 삼백편의 유포이다. 가만히 선생의 文을 보니 글자마다 字法이 있고, 구절마다 句法이 있으며 효제에 근본하고, 의리에 밝으며, 그 말은 간략하고 그 뜻은 미묘하다. 겸손의 덕이 章句 사이에 가득하니, 그런 즉 백성의 도리와 만물의 법칙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백세의 뒤에 선생의 시를 외고, 선생의 문을 읽는 자는 반드시 선생의 도를 아는 자이다. 그런 즉 소위 立言著書가 후세에 전할 것은 그 많은 데 있는가, 역시 많은 데 있지 않을 것인제!<sup>55)</sup>

개암의 詩와 文의 장처를 개략하여 말한 것이다. 남아 있는 작품으로도 개암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으니 굳이 그 수를 따질 것이 못된다고

54) 而其或遇興而吟 因事而纂(『개암집』하, <행장-강위수>)

55) 竊觀先生之詩 流出於性情 典而雅 和而不淫 無一點塵埃 應氣瀾乎 感發人之善心 懲創人之逸志 則其三百篇之遺也歟 竊觀先生之文 字有字法 句有句法 本乎孝悌 明於義理 其辭約 其旨微 摛謙之德 藹然於章句之間 則民彝物則 不外是矣 自今百世之下 誦先生之詩 讀先生之文者 必有知先生之道者矣 然則倘所謂立言著書 傳於後者 其在多乎 亦不在多矣(『개암집』, 鄭岐胤, <介庵先生文集序>)

하였다. 본 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현전 문집 소재의 작품이 개암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개암의 文에서 격식을 갖춘 것이라곤 <養眞齋記>와 <濼溪書院記> 두 편에 불과하다. 여섯 편의 편지글이 있으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고받은 것이라 문예적 특성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단지, 두 편의 기문은 ‘記’ 양식이지만 단순한 보고문 형식의 사실 기록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구성과 유려한 표현미, 그리고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養眞齋記>는 앞서 보아온 바와 같이 지리산 자락의 구곡이라는 곳에 지은 齋舍인 양진재에 부친 기문이다. 전체적으로는 前敍事 後議論이라는 ‘記’ 양식의 일반적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 전반부는 樓亭記와 같이 건물 주변 경관과 내부의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養眞’이라는 명의를 해석하는 의론부의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해 지나친 기교에 치우치지 않고 은근하고 곡진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서재는 몇 개의 서까래를 써서 바위에 의지했는데, 깊은 골짜기를 굽어볼 수 있다. 띠풀로 덮고 대로 엮으니 산뜻하고 깨끗하여 흙먼지가 일지 않아, 역시 죽히 지친 다리를 펴고 노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물며 또 푸른 산과 짙은 그늘에 흐르는 물이 서늘함을 뽐고, 한가한 구름 가운데 개인 달이 書案 사이로 빛을 뿌리며 흩어졌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고금의 경전 사서와, 시부 등이 있고, 뜰 아래에는 매화, 대, 국화, 오동과 난초 등숙을 즐지어 심었다. 그 기르는 바가 남보다 가난하지도 않고 또 남보다 사치하지도 않았다. 호화로운 누림은 기대하지 않으나 한가한 중의 생활을 꾸릴 수 있으니, 진실로 가히 넉넉함으로 삶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sup>56)</sup>

56) 齋數椽而依古巖 俯幽澗 覆以茆 編以竹 蕭然灑然 塵土不起 亦足以容倦膝而將老焉 況又青山落陰 流永響寒 閑雲霽月 霏微婆娑於几案間 而案上 更有古今經史 若詩賦之篇 庭下 列植梅竹菊梧 及芝蘭之屬 其所蓄不貧於人 而亦不侈於人 不待鍾

전반부 서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재사 밖의 풍경과 재사 안의 물상을 함께 아우르면서 그 가운데 거하는 주인의 모습을 그렸다. 주변 경관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서책이 있는 방안 그리고 주인의 한가로운 일상과 더불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후반부의 액호에 대한 명의 해석은 ‘양진’이 서책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이는, 재사 내외의 風情을 묘사한 위 서두부분과 내용상 관련성을 맺게 됨으로써 구성상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

<남계서원기>는 기문 형식으로는 다소 과격이라 할 만하다. 전서사 후 의론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글 전체가 議論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기양식’의 형식적 특성상 글의 전반부에 위치하는 사실 기록이 오히려 글의 중반부 이후 의론 속에 일정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

무릇 道는 천하에 혼용하고 가득 차서 길이 쉬지 않는다. 그 오는 것은 처음이 없고 그 가는 것은 마침이 없다. 크도다, 도의 도 됨이여!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땅이다. 일월이 밝음을 이어가고, 추위와 더위가 교대로 행하며, 산은 장중하며 물은 흐르고, 금수가 날고 달리며, 초목이 번성하고 마른다. 크고 작고, 높고 낮든지 각각 性命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 도일 따름이다.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나 이 도를 얻으면 사람이 되고, 삼재에 참여하여 그 가운데 서고, 만물을 한 마음에 갖춘다.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은 두렵다. 그러나 도를 행하게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일 따름이다.<sup>57)</sup>

‘道’에 관한 일반론적 진술이다. 도는 천지만물에 작용하는 바른 도리라

鼎之享 而閑中計活 誠可以飽飫餘齒(『개암집』상, <양진재기>)

57) 夫道之在天下 渾淪磅礴 悠久不息 其來也無始 其往也無終 大哉 道之爲道也 上而天下而地 日月之代明 寒暑之錯行 山之所以壯 河之所以流 禽獸之飛走也 草木之榮枯也 洪纖高下 各正性命者 是道而已 人生於天地間 得是道而爲人 參三才而中立 備萬物於一心 天之所以與我者厚 而道之所以行者亦人而已(『개암집』상, <남계서원기>)

는 것과, 궁극적으로 이를 행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글 冒頭의 바로 이 내용이 논리적 前提가 되면서 전체의 구성을 견인하도록 한 것이 이 글의 특징이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의미 단락으로 보면, ① 문헌공이 도를 밝혔다 ② 그러나 그의 사후 도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졌다. ③ 도를 회복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하였다. ④ 후학은 문헌공의 도를 창도하고 사모하며 배워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도의 개념-도의 성립-도의 상실-도의 회복-도의 지속'의 형태로 이어지는 구성 방식이다. 글의 첫머리에 일반론적 전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감으로서 구성상의 일관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해 가는 방식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개암의 文은 단지 이 두 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개암의 학문 태도와 사업의 공을 각각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양진재기>에서 '양진'이라는 당호의 의미를 풀어가면서 기술하는 내용은 개암의 학문적 지향인 '爲己之學'의 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남계서원기>는 그의 필생의 사업인 남계서원 창설이 유학의 도를 회복하고 계승함으로써 세교에 도움을 주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문예적 기교와 표현미를 충분히 향유하면서도 그를 통해서도 유학의 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개암의 산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위 문집 서문에서 정재윤은 개암의 문을 평하여 '글자마다 자법이 있고, 구절마다 구법이 있다'고 한 것이나, '그 말이 간략하고 그 뜻은 미묘하다'고 한 것은 구성과 표현의 측면에서 말한 것일 터이다. 그리고, '효제에 근본하고 의리에 밝다'고 한 것이나 '백성의 도리와 만물의 법칙'을 아울렀다고 한 것은 그 주제가 담고 있는 교훈적 공효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정재윤의 평언이 개암에 대한 추송의 눈이 지나쳐 實情을 과장한 것은 아닌 듯하다.

개암의 시는 자연을 소재로 읊은 것이 대부분이다. 관직에 나서지 않고 향리에서 일생을 마친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 형식 속에 담아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암의 자연 인식의 태도와 그 시적 형상화 양상에 대해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의 자연에 대한 인식 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내가 이에 벗을 물리치고 오건과 죽장으로 그 사이에서 즐기며 거니니 이 미 왕래하는 번거로움을 끊었다. 또 살림살이의 염려나 종일의 수고가 없고, 단지 책 읽고 꽃에 물 주며 음풍농월뿐이었다. 무릇 세상의 득실과 명성과 이익의 유무가 일찍이 방춘 중의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그런즉 저절로 가히 나의 뜻을 기르고, 내 氣를 기를 수 있으니, 바깥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안을 지키는 데 골몰하지 않았다. 성정의 참됨이 이에서 함양될 수 있기를 바랐다. 고로 이 서재에 편액하여 ‘양진’이라 하였다.<sup>58)</sup>

위는 역시 <양진재기>의 부분이다. 여기에서 개암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두 방향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하나는 ‘살림살이의 염려나 종일의 수고가 없고 단지 책 보며 꽃에 물 대며 음풍농월뿐’이라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세사를 잊고 자연 속에서 閑寂을 즐기는 태도이다. 다른 하나는 재사의 편액을 ‘양진’이라 하고, ‘성정의 참됨이 이에서 함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자연 속에서 뜻과 氣를 길러 본성을 함양성찰하고자 하는 태도이다.<sup>59)</sup>

58) 余於是 謝友朋 烏巾竹杖 優游偃仰於其中 既絕往來之煩 且無經營之念 呻晡之孜孜者 只是看書灌花 吟風月而已 凡當世之得失 聲利之欣悴 曾不向方寸中攙我天君 則自可以養吾志養吾氣 而不牽於外緣 不汨其內守 性情之眞 其庶幾涵養於斯矣 故扁是齋曰 養眞(『개암집』상, <양진재기>)

59) 실상,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중세 사대부의 일반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은 도의 수행공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천지만물의 조화 속에서 도의 본체를 궁구하려 한 것은 조선 사림이 초기부터 지녔던 자연 인식의 태도였다. 말하자면 자연이라는 외물에 마음을 뺏겨 도의 실체를 놓치는, 소위 ‘玩物喪志’를 범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문학 역시 도를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소위 ‘載道之器’의 공효론적 문학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素月明秋練	흰 달빛은 맑은 가을 비단 같고
澄流靜不波	맑은 시내는 고요히 물결도 일지 않는다
春風坐一夜	봄바람에 밤새껏 앉았으니
眞味正如何	진정한 맛을 정말 어찌 하겠는가 <sup>60)</sup>

이 시는 개암이 山天齋에서 남명을 모시고 달을 감상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였다. 이 시의 이해에 중요한 것은 자연 외물과, 이를 대하는 서정적 자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봄날 아름다운 밤풍경을 보면서 그 그윽한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의 정조는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위에서 소재로 동원된 ‘가을 비단 같은 흰 달’이나 ‘물결도 일지 않은 맑은 시내’는 만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청정함과 고요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한 점의 티끌도 끼지 않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순수 자연의 본질 그대로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저 단순한 외물이 아닌 이런 본연적 실체로서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 점의 삐걱된 기운도 갖들지 않도록 수행함으로써 본성의 바탕을 체현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素月’과 ‘澄流’로 대변되는 자연은, 함양성찰을 통하여 본성적 도를 구현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인간 내면의

60) 『개암집』상, <山天齋 侍南冥先生賞月>

외면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장>의 다음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신년 여러 유생들과 함께 양진재에서 도를 논하였다. 때는 중추절로 달 빛이 비단을 펼친 듯하였는데 문득 흥취를 내어 길게 탄식하여 말하기를 “맑은 밤이 이와 같으니, 어찌 또한 한 점 티끌의 더럽힘이 있겠는가. 사람이 마땅히 마음을 씻고 생각을 고요히 함이 정녕 이 밤과 같은 후에야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소강절의 <청야음> 일절을 읊었다.<sup>61)</sup>

위에서 개암은 유생들에게 ‘마음을 씻고 생각을 고요히’하는 함양성찰을 통해서 ‘티끌 한 점 없는 맑은 밤’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즉, 본연의 자연과 본성적 내면과의 일체를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청야음>을 읊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강절의 <청야음>은 그러한 자연과 마음이 궁극에서 일체가 되는 희열을 읊은 시이기 때문이다. 『성리대전』에 실린 <清夜吟><sup>62)</sup>의 말미에는 小注로써, ‘이 시를 빌어 성인의 본체가 맑고 밝으며 사람의 욕망이 모두 정화된 것을 형용하였다. 달이 하늘 가운데 와 있을 때란 곧 가렸던 구름이 다 가신 것이고, 바람이 수면에 불어 올 때란 곧 파도가 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망이 모두 정화되어 천리가 유행하는 때인 것이다’<sup>63)</sup>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위 인용한 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즉, 소강절이 인욕의

61) 庚申 嘗與諸生 論道於養眞齋 時當仲秋 月色如練 忽發興長歎曰 清夜如此 豈復有一塵之汚耶 人當洗心靜慮 政如此夜而後 可以爲人 因咏邵堯夫清夜吟一絕(『개암집』하, <행장-강위수>)

62) <清夜吟>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

63) 此篇借物形容聖人本體清明人慾淨盡 蓋月到天心 則雲靄盡掃 風來水面 則波清不興 此正人慾淨盡天理流行時也(『性理大全』卷 七十, <清夜吟> 小注)

정화와 천리의 유행을 경험함으로써 ‘이러한 청신한 맛, 이는 사람 적을 것이라’라고 했듯이, 위 개암의 시는 함양성찰을 통하여 맑고 고요한 상태가 된 시인 자신의 내면이 자연의 물상과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점 인육의 삿됨이 없는 내면의 상태와 천리가 유행하는 조화된 만물 사이의 일체감을 드러내려는 詩作 의도로 해서 개암의 시에 표현된 자연은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 즉, 시간으로는 밤이면서 움직임은 멈춘 상태, 소리도 찾아들고 바람도 일지 않는 정적의 四圍, 그러면서 푸른 것은 원래의 색으로 푸르고, 밝은 것은 원래의 밝음을 그대로 지니는 만물 등이 그것이다.

碧落秋晴響遠江	푸른 가을 하늘 멀리 강으로 이어지고
柴扉撐掩息村尫	시비는 굳게 닫혀 개 짖는 소리도 그쳤다
竹風不動小園靜	대나무 바람도 일지 않고 작은 뜰은 고요하니
明月在天人倚窓	하늘에는 밝은 달, 창에 기댄 사람 <sup>64)</sup>

養性偏從靜裡多	본성의 함양은 고요함을 좇을 때 더하여지고
夜中全覺樂如何	밤 중에 온전히 깨달으니 즐거움이 어떠한고
天心月素山門掩	하늘 가운데 달은 희고 산문은 닫혔으니
誰把塵緣入我家	누가 인간세상 인연을 따라 내 집에 들겠는가 <sup>65)</sup>

첫 번째 시의 ‘碧落’과 ‘遠江’, 그리고 시비를 닫고 있는 집과 개 소리도 멈춘 마을, 그리고 하늘 위에 맑은 달은 자연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자연의 물상이지만 그 무엇에 의해서 본질적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은 상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 모두는 마지막 구 ‘창에

64) 『개암집』상, <秋夜坐風夜齋>

65) 『개암집』상, <靜夜吟>

기댄 시인(一人倚窓)을 표상한다. 시인은 그저 자연의 물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각으로 포착되는 이러한 절대적 본체인 자연의 물상과 일체를 이루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시는 시인의 의지적인 노력이 더욱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밤중의 정적, 흰 달과 닫힌 사립은 본성을 기르는 유효한 환경적 요소들이다. 여기서는 한밤중 정좌수련을 통하여 내면의 찌꺼기를 몰아낸 상태, 그래서 ‘夜中坐覺’은 비로소 고요함 속에 깃든 본체적 외물과 소통을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럼으로써 얻는 기쁨은 큰 것이며, 세상 인연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개암이 자연을, 도의를 강마하고 우주만물의 이법을 통효하고자 하는 수행의 공간으로 이해하였음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가 시를 통해 드러내려는 유학의 도가 본체론이나 심성론과 같은 유학의 관념적 철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본 바와 같이 함양성찰이라는 개인적 역행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지향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즉, 그의 시 세계에서도 위기지학이라는 그의 평소의 공부 방식과 사유태도가 그 기본적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암은 그러한 사상적 지향을 생경한 언표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연 사물과의 은유적 대응을 이루게 하는 등의 절묘한 표현 방식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 개암 시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사립은 자연을 유학의 도를 궁구하고 체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마는, 또한 자연의 기본적인 속성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자연은 말 그대로 인위적 통제와 제약을 벗어난 자유와 일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때로는 유학의 엄격한 도의와 규례에서 오는 정서적 경직을 풀기 위한 목적에서 산수락을 즐기며 한가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유희 공간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개암은 ‘양진’을 목적으로 자연에 들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 스스로 도학자로서 엄정한 삶의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연을 통한 심신의 이완과 정서적 여유를 희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金臺邀月幽禪磬	금대에서 달을 맞는 선승의 경쇠 소리
龜谷耕雲野夫耨	구곡에서 구름 헤치고 들 사나이는 김 매고
靈鷲楓酣紅似染	영취산 단풍은 짙어 붉게 물들인 듯
楸城嵐陣翠如流	추성의 아지랑이는 비취색으로 흐르도다
寒泉洑洑龍湫石	차가운 물 흘러나오는 용추의 바위
峭壁巖巖獨女秋	깎아지른 절벽 위 독녀암에는 가을이 드네
物外閑行眞得趣	만물 밖 한가로이 행하니 참된 맛을 얻고
佳山好水任長休	아름다운 산 좋은 물에 기대어 길게 휴식한다 <sup>66)</sup>

我欲賞西溪	내 세계를 감상하려 하여
友朋邀相挈	벗들을 맞아 이끄네
窈窕境轉幽	아름다운 경치는 도로 그윽하고
清寒心欲活	맑고 차니 마음이 살아나듯
巖樹翠成幄	바위와 나무는 푸른 장막이 되고
石瀨白灑雪	돌 사이 여울물은 눈처럼 부서지네
細雨忽飛去	가랑비 문득 날리니
青山更愁絕	청산은 다시 수심을 띠네
景趣浩無窮	경치는 넓어 끝이 없는데
風烟步步別	안개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蒼松蔭我坐	푸른 솔이 그늘을 드리우니
冷泉迎我濯	찬 샘은 나를 맞아 씻어주네
笑談塵機息	정다운 이야기에 세상먼지가 가시고
啞哦爽籟發	낭낭한 짓대소리 발하도다

66) 『개암집』상, <龜谷偶吟>

暫倚蘭蕙叢	잠간 난초 떨기에 기대어
喜得氷玉潔	빙옥과 같은 깨끗함을 기뻐하도다
林壑眞我土	숲과 계곡은 정말로 나의 땅이니
榮辱非所屑	영욕에 매일 바가 아니로다
此間有至樂	이 사이에 지락이 있으니
吟風且咏月	바람을 읊고 또 달을 읊조리도다
何當共樓遲	어떻게 하면 함께 머물러
與君相對越	그대와 서로 마음을 나눌꼬
幸我雲水交	다행히 구름과 물과 같은 사귄이니
佳期從此結	좋은 언약 이로부터 맺도다 <sup>67)</sup>

첫 번째의 시는 개암이 양진재를 조성한 곳인 구곡의 가을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선승의 경쇠소리’의 청각적 이미지와 ‘야부의 김 매는 모습’의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영취산 단풍과 추성의 아지랑이’의 遠景과 ‘한천과 초벽’의 近景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구곡 주위의 승경을 절묘하게 묘사해내고 있다. 자연에 내면의 의식 작용을 투사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가시적인 물상을 그려냄으로써 심미적인 수사로 일관한다. 미련의 ‘물외한행’은 몸뿐만 세속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마저도 일상의 규범과 법식에서 놓여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유이다.

두 번째 시는 서계를 벗들과 유람하면서 지은 시이다. 처음부터 제 10구까지는 서계의 주변 물상을 그려내고 있다. 개암이 그리고 있는 자연은 앞에서 보았듯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나무며 돌이며 샘 같은 자연 물상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역시 여기에서도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번거로운 세사를 벗어나 정서적 여유를 만끽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앞서, 유학적 도의 구현에 주제적 작의를 둔 시에서는 체제가 된 자연의

67) 『개암집』상, <翌朝 至石上 次金開巖(敬夫)韻>

물상과 인간 내면을 대응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정한 관념적 방향성을 지녔음을 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자연을 정서적 이완 공간으로 인식한 경우는 이와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동원된 시어가 보다 언어적 미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서정적 자아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성도 매우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즐기므로써 일상의 규례를 벗으려는 의도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에서도 개암의 기본적인 태도는 유지된다. 즉, 자연을 즐기는 태도가 비록 자유로운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방만한 일탈을 조장하거나 정도를 벗어난 풍류 흥취를 구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은 유가 사대부로서의 일상적 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마는, 그렇다고 세속적 일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재윤이 서에서 ‘엄정하나 고이하고, 화려하나 음탕하지 않다(典而雅 和而不淫)’라고 한 것은 개암의 시가 지니는 이러한 속성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상 보았듯이 개암의 시작 태도는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자연과의 일체를 시도함으로써 ‘도’에 이르고자 하는 유가적 사유를 시적 언어로 구현한 경우였다. 하나는 자연의 물상을 심미적인 태도로 관조함으로써, 도학자적 일상뿐만 아니라 세상사 모든 속태나 기심을 잊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인의 자유로운 감성을 형상화한 경우였다. 그러나 실상 이 두 경우의 저변에 흐르는 개암의 詩作 의식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즉 세속의 한점 진애도 없는 자연과 인간 본성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의 표현이다. 단지 전자는 그것을 함양성찰이라는 유가적 수행으로 성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한 의도적인 노력마저도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의 차이일 따름이다.

## 6. 맺음말

개암은 사림 출신으로서 도학자로서의 전형을 보였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엄정하고 절제된 생활 태도로 일관했고, 유교적 예의와 법식에 철저하였으며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였다. 요컨대, 개암은 출사에 크게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자연 속에서 적연공리하면서 성정을 기르며, 인근 문사들과 도의로 교제하는 것을 일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개암은 함양에서 나서 여기에서 일생을 보내다 생을 마쳤다. 따라서 그 지역의 문사들과 교의를 나누었겠지만, 또 일정기간 남명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개암이 처음 가르침을 청한 스승은 향리의 유학자인 당곡 정희보이다. 그러나 당곡은 높은 학문적 경지에 이른 학자는 아닌 듯 개암의 지적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 개암은 일정 시기까지는 오히려 독학으로 일정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당대 강우 지역의 儒宗인 남명의 문하에 출입한 것은 그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그 방향성을 더욱 공고해 했을 뿐 아니라, 동문의 문사들과 교의를 맺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암과 우의를 나눈 당대의 문사는 玉溪 盧禎, 德溪 吳健, 東岡 金宇翁 등이다. 이들 일부는 향리의 유생도 있지만, 또 대개가 남명의 문인들이다. 이 중 가장 깊은 우의를 나눈 당대의 문사로는 노진, 오진, 김우옹을 들 수 있다. 초기 사림의 실천적 학문 성향이 남명을 중시한 강우지역 학풍에 이어져 그 특징을 이룬 것에 개암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개암은 ‘爲己’의 학문을 하고자 하였다. 즉, 천리를 구현하고 인욕을 막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적 바탕인 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자의 존심양성에 논리를 둔 함양성찰의 공부에 뜻을 둔다는 의미이다. 출사하여 성리학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려는 경우와 별개로 이런 위기지학의 처세관

을 가치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성종대 성리학자들에서 구체화되어 개암이 살았던 시기까지 하나의 견고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명 조식을 중심으로 한 그 문도들은 인적, 학문적 교류를 통해 위기지학의 실천적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개암은 ‘위기지학’으로서 존심양성의 실천적 생활태도를 견지한 것과는 별개로, 그는 실제로 유교적 예교와 법식에 깊이 통효하였다. 그가 남계서원을 건립하고 원장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규를 정한다든가, 제전절차를 관장하면서 자연히 유교적 의례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남명 역시 개암 사후 그를 위한 만사에서 그의 의례 학습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어 개암이 평생 이를 궁구하고 천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암은 개인적 수신과 병행하여 유학의 보급과 창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진작부터 후진 양성에 적극 나섰다. 30세 전후해서는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34세 즈음에는 문전이 붐빌 정도였다고 하였다. 남계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것은 선현의 학덕을 후대에까지 이으려는 그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개암이 서원 창립에 그 스스로가 앞서 적극 추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에 공감하는 바가 누구보다도 각별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여창에 대한 후대 사림으로서의 평가, 즉 유학의 정통을 잇는 학문적 업적과 도덕적 순정성에 대한 개암의 절대적인 신뢰와 추종에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암의 文은 격식을 갖춘 것이라곤 <養眞齋記>와 <藍溪書院記> 두 편에 불과하다. 여섯 편의 편지글이 있으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고받은 것이라 문예 작품으로 여기기는 어렵다. 단지, 두 편의 記文은 단순한 보고문 형식의 사실기록이 아니라 치밀한 구성과 유려한 표현미, 그리고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정재윤은 개암의 글이 구성과 표현의 측면에서나 주제가 담고 있는 교훈적 공효의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볼 때, 정재운의 평언이 개암에 대한 추송의 염이 지나쳐 실정을 과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암의 시는 자연을 소재로 읊은 것이 대부분이다. 관직에 나서지 않고 향리에서 일생을 마친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의 자연에 대한 인식 태도는 두 방향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하나는 세사를 잊고 자연 속에서 한적을 즐기는 태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 속에서 뜻과 기를 길러 본성을 함양 성찰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는 시에서도 구분되어 나타난다.

우선, ‘재도지기’로서의 시작 태도이다. 개암의 시에서는 절대적 본체의 자연과 함양성찰을 통하여 사사로움을 물리친 내면을 일치시키려는 작가 의식이 작용한다. 이럴 때의 그의 시는 유가적 사유의 관념적인 언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다음은 자연을 즐기므로써 일상의 규례를 벗어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개암의 시이다. 그러나 그가 자연을 즐기는 태도는 방만한 일탈이나 풍류흥취가 아니다. 자연은 유가 사대부로서의 일상적 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마는, 그와 함께 세상의 온갖 티끌도 떨쳐버릴 수 있는 절대적 청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자연 인식에 바탕을 둔 시는 언어적 미감에 충실할 뿐 아니라, 내면의 다기한 감성을 그려내는 데도 자유롭다.

개암의 시작 태도는 이처럼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저변에 흐르는 시인 정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속의 한점 진애도 없는 자연과 인간 본성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다. 단지 전자는 그것을 함양성찰이라는 유가적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한 의도적인 노력도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의 차이일 따름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性理大典』

姜翼, 『介庵集』

金字顯, 『東岡先生文集』

盧禎, 『玉溪集』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민족문화연구소자료총서』 Vol. 4, 1994.

李翼成 譯, 『南冥先生文集』, 德川書院·頭流文化研究所, 1980.

曹植, 『南冥集』

### 2. 논저

金思燁, 『國文學史』, 正晉社, 1953.

金一根, 『介庵 姜翼先生の生涯와 文學』, 『文湖』Vol2, 건국대학교, 1962.

呂基鉉, 『江湖認識의 한 樣相』, 『반교어문연구』Vol. 1, 반교어문학회, 1988.

손명욱, 『함양성찰』,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宋準湜, 『南冥學派의 書院建立 運動』, 『남명학연구』Vol.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尹絲淳, 『濯纓의 道學精神』, 『濯纓 金駟孫의 文學와 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尹浩鎭, 『介庵集 解題』, 『南冥學研究』第十輯, 남명학연구소, 2000.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濼溪書院 연구』, 『남명학연구』제 2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李秉休,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 및 대응』, 민족문화연구소 편, 『濯纓 金駟孫의 文學와 사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李相弼,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이승환, 『도통』,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崔海甲, 『介庵 姜翼의 年譜와 行狀의 飜譯』, 『진주문화』Vol.13, 진주교대 부설 진주 문화권연구소, 1994.

**Abstract**

## A Study on the Kang Ik's Life, Scholarship and Literature

Moon, Beom-Doo

Kang Ik is a Confucian scholar and teacher from Hamyang, Kyungnam-Do in Josun Dynasty. He wouldn't be in government service, but he made a living as typical confucian scholar for his whole life. He always had the moderate life style, observed the confucian rules thoroughly and made a study in Chinese classics. And he left the creative literary works, even if not much. An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his life, scholarship and literature.

Kang Ik was taught by a teacher who lived in hometown at first. Afterward, he took lessons from Jo Sik who was a Confucian leader in Youngnam province. It had his study be deeper, him get ideological direction and make many friends who had studied under Jo Sik.

He went deep into the study in 'Internal Learning'. Internal Learning means the study method which have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external desire and recovering the human moralistic nature. And he had special knowledge about Confucian rules and tried to inherit and teach Confucian leaning for his students. His best achievement was to build the Namgye Seowon, which was a kind of school to teach students and worship Jung Yeo-chang who was one of the most famous scholars in Josun Dynasty. This shows his passion to preserve and respect former scholars' learning.

Kang Ik left just two prose works. But they are so good things which have the perfect plots, delicate expressions and clear central meanings. His poems mainly use the materials which can get from nature: moon, stream, rock and wind etc. His poems have two types. One type express the nature as means to recover the moralistic mind. The other type regard the nature as the place

which give us pleasure and freedom. But the basic mind of the two types is same. This is, his poems show the joy and pleasure through experiencing human sole and pure nature which don't be contaminated by any external things.

Key words : Kang Ik, Namge traditional school, Jo Sik, Confucian group. Jung Yeo-chang

문범두

국립진주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소 : (660-758)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진주산업대학교 교양학부

전화번호 : 010-9771-5608

전자우편 : bdmooon@jinju.ac.kr

이 논문은 2010년 4월 29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